

문영숙의 꼭 알아야 할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 <2>

## 최재형 의병 포기한 것처럼 위장하고 은밀하게 의병 모집 훈련시키자 러시아에서도 최재형의 의도를 포착함



문 영 숙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최재형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최재형은 러시아의 제재를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1908년 12월, 수정에서 의병 500여명이 안치혜 지역으로 응원을 오자 최재형은 안치혜에 있는 의병 200여명을 모아놓고 현재 자금이 부족하고 병력이 적어 잠시 해산한다고 말했다. 이에 수정에서 온 의병들은 국내진공작전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재형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산전투에서 참패하고 간신히 살아 돌아 온 안중근도 최재형을 찾아갔으나 최재형은 지원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러시아 당국은 귀화한인들에게도 징병령을 내리고 징병을 위한 호구조사를 실시했다. 이 무렵 중국에서도 의병들을 탈검지 않아 했다. 1908년 11월에는 노령 안치혜로부터 중국령 양령에 파견되어 있던 의병 200여명의 부대장 이경화가 청국 군사에 의해 감금되는 사태도 생겼다.

러시아는 점 점 더 최재형을 압박하여 의병운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 러시아 당국에서는 최재형과 그의 추종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한 내용이 있다.

‘일본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마찰을 빚지 않고 우리 영토에서 한인들이 정치적인 일을 기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경흥시에 있는 조선인 니콜라이 이 (이경화)를 강도이자 약탈범으로서 체포하여 일본 당국에 넘겨줄 것.

1. 조선인 망명객 이범윤을 하바롭스크로 추방하고, 그곳 경찰이 감시하에 연금상태로 억류할 것

1. 안치혜 마을의 포트르 최와 지신 허 마을의 농민 엄인섭을 불라고베센스크로 추방하여 1년간 경찰의 감시하에 둘 것.

최재형은 위와 같은 러시아 측의 감시와 탄압에도 1909년 3월 의병 500명 내지 600여명을 모집하고 흠병도를 지휘 관으로 하여 조선점입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철저히 위장했다. 이 사실에 대해 일본 측의 첩보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보고되었다.

‘1. 최재형은 표면상 폭도와 관계를 끊은 것과 같이 가장하나 그 실은 러시아 관헌에 대하여 총기, 탄약, 기타의 원조를 바라고 지금도 교섭중이라는 풍설이 있으나 실은 그가 폭도들의 악감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여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재 노보키예프스크에 잔류한 폭도는 10명 내외로 그 중 다섯 명의 두목은 최재형의 집에서 기거하였다.) 것을 이용하여 두목 등이 적의 세력을 가장하는 예의 유혹 수단에 불과한 것과 같이 최재형은 현재 진실로 폭도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또 다른 문서도 있다. ‘최재형은 폭도와 관계를 끊으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분기할 기회는 타일 도래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후 그는 옛날 부하들에 대하여 완화 수단을 취하는 외에 하등 하는 바가 없다. 단 그가 소위 분기할 시기는 후일에 있다고 하는 것 역시 적도들과 관계를 끊는 일시의 권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최재형은 여러 가지 풍설과 자신의 말을 통하여 의병활동을 포기 하였음을 강조한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나 최재형은 의병활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준비를 숨기기 위한 위장전술이었다. 다음과 같은 일본

쪽 기록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동인은 전혀 폭도의 수령을 그만둔 것이 아니다. 그 외관은 전혀 폭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들어내나 내면은 그렇지 않다. 현재 안치혜에 있는 그의 기를 제조소에 있는 동의회원 백규삼 등 7명은 항상 주모자가 되어 각 지방에 연락하고 있다. 최가 그들의 의복을 공급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또 일찍이 강창두 외 2명이 여권이 없으므로 거러사 관헌에게 체포되어 금고되었을 때에도 최재형이 돈을 내어 석방시켰다. 6월 25일 최의 기를제조소에 있는 주모자 등은 이번 경흥 부근에 강도를 하려고 계획하여 장차 각 지역에 산재한 잔당 등에게 통보하고자 했던 바, 경흥 부근의 정황이 불명하고 아직 시기가 빠르다 하여 드디어 통문의 발송을 중지하게 되었다.’ 이 와 같이 최재형과 이범윤의 같은 은 1908년 동의회 창립 당시부터 내재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만 최재형과 이범윤은 국내진공작전이라는 대명제를 앞에 두고 서로 단결하여 의병전쟁을 실행했다.

러시아 자료에 보면 이러한 갈등들이 중복되어 보고되었는데 포트르 최가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동족으로부터 영예를 얻기 원한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이범윤 부대원 중 몇 사람은 최재형의 지원이 끊어지자 빈곤해서 최재형의 부대로 넘어 왔고 또 다른 대원 중에서도 거주증을 얻을 수가 없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훈춘이나 간도로 달아나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농촌 마을에서는 최재형의 부대원이라는 증명서를 보여야 안심할 수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참고도서 : 박환의 <시베리아 한인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문영숙의 <독립운동가 최재형>

### 김영희의 교육에세이



김영희

CTN/교육타임즈 객원기자 제

도권 학교가 위기다. 학력과 과자들과 사물인터넷 등으로 기존 학교의 형태가 차츰 허물어지고 있다.

그간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던 아이들, 생각이 비슷하고 모습도 비슷해야 안심인 아이들, 남과 다름은 왕따의 대상이 되어 두려워한다. 무엇보다 자기 결정권이 없이 공부라는 뜻에 끌려 사는 아이들이다. 엄친아, 엄친딸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아이들, 성적으로 좌절하고 자신이 쓸모없음을 날마다 세뇌시키는 아이들, 마치난파된 배에서 처럼 우리아이들이 강제로 꿈에서 소환당하고 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남과 다름을 인정하고 어렵지만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도록 용기와 패기를 권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에게나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다. 그 귀한 의지력은 사용할수록 빛이 난다.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사장되고 만다. 아무리 좋은 능력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기 마련이다. 어떤 일이트 아이가 직접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 나름의 역량을 발휘하게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놀아야 할 아이들에게는 운동장이 필요하고, 뭔가 실험하고 싶은 아이에게는 실험실을 제공해야 한다. 형편에 맞게 선택할 기회를 어려서

## 학교가 정말 사라질까?

부터 부여해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흠뻑 빠져 실컷 탐험하며 자기의 분야를 개척하도록 길을 터줘야 할 의무가 있다.

얼마 전 결혼한 어느 새색시를 만났다. 그녀는 중학교 시절, 부모에게 재봉틀을 사달라고 졸랐다. 부모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공부를 해야지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냐”며 단칼에 아이의 의견을 일축해 버렸다. 그런 그녀의 근황을 물으니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지금은 쉼트를 1년 정도 배우고 있다고 한다. 10년 안에 명장이 되는 게 그녀의 꿈이다. 만약 자기 엄마가 자기가 원할 때 재봉틀을 사주며 그것을 적극 권유했다면 아마도 지금쯤 장인이 되었을 거라며 씁쓰레했다. 그렇다. 우리는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게 바로 아이의 행복이며 성공의 지름길이다. 아이의 기량을 살려 원하는 길을 펼쳐줄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다변화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며 주요 목표이기도 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스티븐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서처럼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개인도 나라도 낙오자가 된다. 책상머리 교육만이 참 길인가? 고민하게 한다. 인터넷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경험과 체험만이 진짜 공부 되는 시대다. 세계 유수 대학이 무크(MOOC-전 세계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공유) 강연을 공개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도 몇 개 대학이 실시 중이다.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대학 시스템에도 위기가 올 것이다. 자기 방에 앉아서 세계적 학의 강의를 들으며 학위도 딸 수 있으니 말이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이 되면 대학의 절반이 상이 사라진다고 했다.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가 불러오는 대변혁 중 하나임을 자각하자. 코로나 19로 인해 그 변혁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다. 나노디그리가 각광받는 이유도 그에 속한다. 6개월~1년 정도의 빠른 학습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4년이란 장시간의 교육이 불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간에 배운 지식들은 사회에 나올 즈음엔 아무 쓸모 없는 구닥다리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식 나노디그리가 개발되고 있다. 이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실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간판보다 실력이다. 그런 추세에 따라 미국 등 선진 국에서 학력 파괴자가 늘고 있다. 흠스쿨링하는 숫자가 날로 늘어 나는 것도 그에 중 하나다. 흠스쿨링이 느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학생 개인에 맞춰 커리큘럼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각각의 학생에게 맞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유에 앞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신체적, 정신적 학교 폭력과 마약, 술, 인종차별, 특히 동성애 등의 왜곡된 성정체성을 가르치는 공립학교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것이 더 큰 이유이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앞으로 15년 후 대학 절반 가량이 문닫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고 대학이 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평생교육으로 대체하면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의 난제를 극복키 위한 방안으로 세계적으로 평생교육화하고 있다. 우리의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

미세 앞을 깨끗이 쓸고 물을 뿌리니까 주인 영감님이 그렇게 좋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주영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게 앞을 깨끗이 쓸고 정돈했으며, 열심히 배달하고 부지런히 ‘되질’과 ‘말질’을 익혔다. 그를 눈여겨볼 가게 주인은 정주영에게 장부정리를 맡겼다. 세 번째 가출했을 때 부기학원을 다닌 실력을 발휘하여 그는 재고관리와 고객별 원장·분개장을 갖추어 놓았고, 성실과 신용으로 주인은 물론 거처한 고객들을 감동시켰다. 정주영은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받은 급료를 저축했다.

정주영이 복흥상회에서 3년 동안 일하는 사이에 정주영을 눈여겨 본 주인은 여자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아들대신 정주영에게 가게를 물려주었다. 정주영은 그동안 쌓은 신용만으로 복흥상회를 인수하여 쌀가게 주인이 되었다. 단골손님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정미소로부터 전과 다름 없이 월말계산으로 쌀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1938년에는 서울 신당동에 가게를 새로 얻어 ‘경 일상회’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때 그의 나이 23세, 고향을 떠난 지 4년 만의 일이었다.

그는 일반 가정, 음식점뿐만 아니라 서울여성 기술사와 배화고녀 기숙사에도 계속해서 쌀을 대주며 장사 규모를 키워나갔다. 그의 오랜 막노동과 고용살이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의 독자적인 사업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 되었던 것이다.

## 제1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



리 채 윤  
CTN/교육타임즈 논설 위원

나는 젊었을 적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다. 왜 일찍 일어나느냐 하면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은 소학교 때 소 풍가는 날 아침, 가슴이 설레는 것과 꼭 같다. 또 밤에는 항상 숙면할 준비를 갖추고 잠자리에 든다. 날이 밝을 때 일을 즐겁고 힘차게 해치워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1983. 7. 29, 신임사원 하계수 런대회 특강에서

1. 시작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꿈을 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괴테

‘무언가를 잃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얻는 것이라고’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란 소설을 보면 남자친구를 찾아 가출한 여자 친구 가즈키를 만난 자리

에서 주인공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무언가를 잃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얻는 것이라고’

정주영은 소년시절 가난한 농촌 생활이 싫어서 무려 네 차례나 가출을 시도했다. 집을 떠나면 굶주림과 제대로 된 잠자리조차 없는 고단한 환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안전한 집이 늘 그리웠다. 그는 번번이 아버지에게 불려져 끌려가야만 했으나 가출을 포기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잃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얻는 것이라고’ 소년 정주영은 믿었던 것이 아닐까. 소년 정주영에게 처음부터 엄청난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세 끼 밥조차 제대로 먹기 힘든 농사꾼으로 살기 싫었을 뿐이다. 그 시대 우리 농민들의 가난은 그야말로 초근목피의 시절이었다. 정주영은 1915년 11월 25일 태어 나서 일제의 압제가 가장 혹독한 시기에 자라났다. 전국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강원도 통천군 송전 면 아산리에서 6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소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에게 대를 이을 ‘일등 농사꾼’ 수업도 받기 시작했다. 농사밖에 모르고 농사가 최고인 아버지는 장남인 정주영에게 농사를 물려주고 싶어 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아버지 옆에서 농사일을 배우며 도와야 했고, 학교 공부가 끝나 돌아와도 일을 해야 했으므로 거의 자유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어린 정주영이 보기에 농

사일은 미래가 내다보이지 않는 일이었다. 가진 농토는 손바닥만 하고 농사짓는 방법은 원시적이어서 일년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다행히 풍년이 들어도 간신히 일 년 양식이 될까 말까였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왔다면 흉수가 망치고 조금 가물었다 하면 흉물이 망치는 그저 하늘만 올려다보며 하는 농사일이 싫었다. 소학교를 졸업하자 소년 정주영은 집을 떠나 도회지로 나갈 결심을 굳혔다. 그런 어느 날, 이장집에 들어서 동아일보 신문을 보던 그는 청진 쪽에서 항만공사와 철도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청진의 그 공사가 마치 자신을 위해 벌려 놓은 공사판처럼 생각되어 마구 흥분되었다.

그날 저녁, 저녁을 먹고 난 주영은 어머니가 빨아 다려놓은 흰 무명바지 저고리를 꺼내 입고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와 청진을 향해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의 첫 가출이다. 하지만 처음 가출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가출에서도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털미가 잡혀 고향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기어이 고향에서 탈출하고자 말겠다던 소년 정주영의 집념도 대단했지만, 기어이 아들을 고향에 붙잡아 두려 하셨던 아버지의 집념도 여간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정주영의 아버지는 귀신같이 아들이 달아난 곳을 알아내고 찾아와서 그를 다시 고향으로 데려와서는 호통을 치셨다. “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놈이 야. 잘난 사람들 많은 서울 땅에서

네가 뭘 해서 먹고살겠냐?” 그때마다 정주영은 배움이 많고 적응이 아니라 노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정주영이 처음 가출했던 청진의 철도 공사판으로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다.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장손이 기동인데 기동이 빠져 나가면 집안은 쓰러지는 법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고향을 지키면서 네 아우들을 책임져야 한다. 네가 아닌 네 아우 중에 누가 집을 나왔다면 내가 이렇게 찾아 나서지 않는다.”

그는 비록 소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결코 배움이 짧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대학이나 자치통감 같은 책을 꿰고 있었기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고, 기업 경영에서 사람 부리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어쨌거나 정주영은 송전소학교를 졸업하고 부모 밑에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배웠다. 농토가 집에서 15리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새벽에 부친을 따라 밭에 나가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귀가했다. 모친의 누에치기 일을 돕기 위해 뽕잎을 따러 심산유곡을 누비고 다니기도 했다. 정주영은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열 살 때부터 농사일을 거드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항상 배가 고팠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청강왕 카네기의 집은 어려웠을 때부터 말할 수 없이 가난했다. 그래서 어린 카네기는 이렇게 결심한다.

“빠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힘껏 일해 우리 집에서 영원히 가난을 쫓아버리겠다.”

아마 소년 정주영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이다. 농사일로 일생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소년 정주영은 조상 전대의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정주영은 네 번의 가출 끝에 서울에 정착하게 된다.

네 번의 가출 끝에 사업가의 길을 걷다

18살인 1931년의 마지막 가출로 인천 부두, 보성전문학교 신축 공사장 등지에서 막노동꾼 생활을 거쳐 풍전 영공장에서 일하던 정주영이 마침내 정착한 첫 직장은 서울 신설동의 쌀가게인 복흥상회였다. 하루 세 끼 먹여 주고 쌀 한 가마니가 월급이었다. 그는 열심히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고 부지런히 근무했다. “복흥상회에 취직한 다음 날 비가 오는데 주인이 쌀 한 가마니고 팔 한 말을 주인에게 배달하라는 거에 요. 자전거는 서투르게나마 탈 줄 알았지만 물건을 싣고 배달해 보는 것은 처음이라서 여러 번 넘어져 핸들이 휘고 쌀가마가 온통 진흙범벅이 되었습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자지 않고 밤새껏 쌀을 자전거에 싣고 다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사흘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쓰러지지 않고 쌀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쌀을 두 가마씩 싣고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